

모태펀드 7000억 출자...1조4000억원 벤처펀드 꾸린다

문체부·교육부 등 9개 부처...1월 1853억 정시 출자 이어 2차 공고 중기부, 초격차 등 9개 분야 4805억 출자...1조원 이상 펀드 조성

정부가 1조4000억원 상당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9개 부처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약 1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함께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53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초기, 스케일업·중

도약, 일반세컨더리, LP지분유동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각각 1500억원, 1150억원 조성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받은 기업의 기존 구조(舊株)를 인수하는 일반세컨더리펀드는

3000억원,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사모펀드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 357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엔젤 모펀드에는 2000억원을 출자한다.
글로벌 모펀드에 648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혁신, 지역엔젤, 글로벌 모펀드의 자펀드 공고와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공고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2차 정시 출자 분야 중 초격차펀드와 창업초기펀드 2개 분야는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VC) 전용 루키리그를 통해 각 400억원씩 출자한다.
또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와 일반세컨더리펀드 2개 분야는 중소형·대형 출자 유형으로 구분해 출자한다.
민간 출자 모집이 대형 VC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형 VC들은 정책 출자 비율이 높은 중소형 유형에 참여할 경우 민간 출자 모집이 용이할 수 있다.
이밖에 문체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8개 부처가 총 20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든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 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1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환경부는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총 500억원을 출자해 그간 환경분야에서 출자한 펀드 중 최대인 71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산업 전용펀드 250억원,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전용펀드 186억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140억원, 교육부는 대학창업 전용펀드 100억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전용펀드 70억원 규모로 각각 조성한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연합뉴스



농협은행 광주본부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3행 3무 실천운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제공>

농협은행 광주본부 '3행 3무 실천운동' 전개

농협은행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내춘)는 지난 6일 광주지역 농협은행 지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행 3무 실천운동'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 2023년을 '청렴농협 구현 실천의 해'로 선정하고 농협 전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행 3무 실천운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농협은 금차 3행 3무 실천운동 결의를 시작으로 임직원 교육 확대, 3무 위반행위(사고, 갑질, 성희롱)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 다채로운 청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내춘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농업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농협 임직원 모두가 3행 3무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 농업인, 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깨끗한 청렴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지방조달청, 규제 혁신 현장소통 강화

TF 통해 규제개선 138건 추진 그림자 규제 발굴 등 적극 행정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노배성)은 조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확정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혁신제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혁신제품 종합 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물가변동 납품단가 조정 등 현장활력 제고 31개 과제 ▲계약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

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AI 챗봇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 개선 및 편의 강화 44개 과제 등이다.
조달청은 우선 광주전남지역 소재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달현장 규제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요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며 "규제 개선사항이 지역 조달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IBM 등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업 육성

중기부, 참여기업 28일까지 접수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도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구글플레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로 협업 대상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아마존웹서비스(AWS)·오라클·IBM

등 3곳이 새롭게 합류했다.
중기부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70개 증가한 270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및 네트워킹 등의 성장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또 중기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할 제2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모집한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1년 2월부터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돼 시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우주 스타트업 육성...500억 규모 우주펀드 첫 조성

과기정통부, 운용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분야 500억원 규모 모태펀드 조성을 위한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펀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00억원을 출자해 총 1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규모 이상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우주산업 저변 확대와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을 발사체, 인공지능을 위시한 우주산업 관련 모든 기업으로 설정했다.

주목적 투자 비율도 정부 출자 비율보다 높은 60%로 설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기술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우주 분야 특성을 고려해 투자 기간은 5년, 회수 기간도 5년으로 설정했다.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운용사에는 관리보수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 민간 스타트업이 우주 개발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 우주산업은 태동기대로 대부분 기업이 영세하거나 신생이라며, 이번 전용 펀드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운용사는 8일 공고되는 '한국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다. 공고 제안서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